



# 월간 「과학과 기술」지 국회 과학기술 언론 대상 수상

국회 김원기 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월**간 「과학과 기술」지가 국회 2004년 과학기술 언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대한 시상식은 2004년 12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원기 국회의장,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 권영세 국회과학기술회연구회장, 홍창선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40여 명과 일반참가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언론부문 대상 이외에 조무제 경상대 총장이 과학기술인상,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단체상을, 그리고故 황명신·은희봉 한국항공대 교수가 특별상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서상기 국회의원이 상에 대한 선정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언론부문상을 발표하고 시상을 했으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문유현 사무총장이 상을 받았다. 이날 문 총장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는데 대하여 독자 및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월간 「과학과 기술」지가 과학기술 대중화와 정책수립 제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국회과학기술연구회는 국민 과학기술문화인식 제고와 과학기술 발전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만들어진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 연구회는 매년 과학기술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과학기술인, 단체, 언론 부문

에 대상을 선정하여 수여하고 있다. 현재 연구회는 권영세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역 27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과학과 기술」지는 "1968년 1월에 창간 하였으며 우리 나라 최고의 과학기술종합 기술지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그동안 과학기술인들의 연구공토 조성과 국민들의 과학기술 고양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과학기술인들의 권익신장과 대중화에 크게 기여해 온 점에 심사위원으로부터 많은 점수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서상기 국회의원(왼쪽)이 문유현 과총 사무총장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문유현 과총 사무총장이 당선소감을 말하고 있다.

과총은 과학기술계 도서시장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도 지난 37년간 꾸준히 월간 「과학과 기술」지를 계속 발간해 왔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변신을 시도해 왔다. 앞으로도 과총에서는 아무리 힘든 여건에 처해지더라도 월간 「과학과 기술」지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또한 과총은 우리 나라 최고의 과학기술 잡지를 발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종합 과학기술정보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독자 여러분들께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할 것이며 독자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ST**

